

“올 가을 남도에서 전통주·식도락 여행 즐기세요”

전남도, 여수·순천·나주·고흥 등 추천 여수 낭도 막걸리·고흥 유지술 '다양 서대회·홍어·장어요리 먹거리도 풍성 나주선 8-9일 '남도 주류페스타' 개최

전남도는 깊어가는 가을 전통주와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여수, 순천, 나주, 고흥을 11월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다. 여수의 낭도는 화산 지형으로 철분 성분이 많은 자연환경 덕분에 부드러운 맛의 막걸리 생산지다. 4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낭도 막걸리는 100년 역사의 깊은 막걸리 맛을 느껴볼 수 있다. 함께 곁들여 먹기 좋은 서대회는 먹거리로 만든 천연식초로 무쳐 비린내가 적

고 담백하며 새콤한 맛이 일품으로 잔칫날 반드시 장만하는 음식으로 여수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별미다. 낭도 막걸리는 고유의 풍미 덕분에 해산물 요리와 함께 즐기기에 좋으며, 여수의 신선한 해산물과 낭도막걸리를 함께 맛보며 가을 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 순천의 순천양조장은 이국적 분위기의 맥주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순천에서 자란 보리로 만든 수제 맥주와 순천에서 직접 재배한 매실로 만든 탄산음료 매실사이다를 수제 햄버거와 함께 맛볼 수 있다. 또한 흑두루미, 순천만, 와은, 낙안읍성 등 '생태수도'라 불리는 순천의 이야기를 담아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다양한 생맥주를 맛보고 포장해 갈 수 있으며, 맛을 유지

하기 위해 코르크 마개로 포장된 선물용 수제맥주도 구매할 수 있다. 나주의 다도 참주가 주조장은 1960년 대부터 전통을 이어온 막걸리 양조장이다. 생막걸리, 술막걸리, 과일막걸리를 제조하고 있다. 이중 한라봉을 듬뿍 갈아 넣은 '라봉' 막걸리는 2023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주조장에서 막걸리 제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나주 전통주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다. 나주 영산포 홍어거리에서 홍어와 막걸리를 함께 맛보며 가을 식도락 여행도 즐길 수 있다. 나주 빛가람호수공원 일원에서는 8일부터 9일까지 도내 전통 주류 업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4 남도 주류페

스타'도 열린다. '남도 주안상 in World'를 주제로 열리는 남도 주류페스타에서는 지역 전통주류 업체와 중국 쓰촨성 주류업체 등 30여 업체가 다양한 전통주류를 선보인다. 전시행사에는 전통술의 역사와 문화, 관련 풍습과 2024년 남도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을 전시하는 '남도의 술', 다양한 전통주와 홍어, 곰탕 등 남도 음식이 어우러진 '남도 주안상' 등이 준비됐다. 남도 술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주류의 맛과 향을 직접 체험할 '남도술 다이닝 바' 등도 운영된다. 고흥의 유지술은 고흥 지역에서 재배한 유자를 사용해 만든 청주, 약주, 탁주, 동동주 등의 전통주다. 고흥은 우리나라 유자의 대표적 생산지다. 고흥 유자는 따뜻

한 해양성 기후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향이 풍부하다. 유지술은 상큼함과 단맛이 좋고 도수가 낮아 식전주로 마시기에 좋다. 고흥 녹동향에는 장어요리와 활어회를 맛볼 수 있는 음식점도 많다. 고흥바다에서 잡힌 활어회와 유지막걸리를 곁들이면 여행의 만족감을 한껏 높일 수 있다. 또한 카페에서 유자아인슈페너, 유자 스무디, 유자 스콘 등 유자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도 맛볼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에는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가 다양하다"며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먹거리가 풍성한 가을, 전남에서 전통주와 함께 식도락 여행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시, 김장철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12월 중순까지 잔류농약 점검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을 위해 김장용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7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 중순까지 로컬푸드, 대형마트,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추·무·양파·갓·마늘 등 100여건에 대해 잔류농약 345개 항목을 검사한다. 특히 서부·각화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경매 전·후 농산물을 집중 수거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긴급 통보시스템' 등록 및 전국 유

관기관에 통보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다. 또 생산지 관할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도매시장 내 부적합 농산물은 농(수)산물검사소에서 즉시 전량 압수·폐기한다.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의 농산물 출하를 제한해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촘촘한 관리를 할 예정이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기별·계절별 등 소비패턴을 반영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겨울철 건설공사장 민관합동 점검

11일부터 4주간 67곳 대상 광주시는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12월6일까지 4주 간 지역 건설공사장 67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국도안전관리원·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폭설·한파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폭발 사고나 추락사고, 저온으로 인한 콘크리트 양

생 불량 등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동절기 화재·붕괴·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 △한중(寒中)콘크리트 사용, 보온양생 계획 등 동절기 공사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 △폭설 대비 비상용 제설 자재 및 장비 확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즉각 조치가 어려운 부분은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해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산악연맹, 서포터즈·스포츠산업 '맞손'

6개 스포츠·레저 협회와 협약 전남도는 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대한산악연맹 등 6개 스포츠·레저 관련 협회와 관광체육국, 기업도시담당관 등 관련 부서 업무협약을 통해 전남 사랑에(愛)서포터즈 모집·스포츠 산업 발전에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손중호 대한산악연맹회장, 정정훈 대한수영연맹회장, 이금음 대한파크골프협회장, 구자록 대한철인3종협회부회장, 임언석 대한자전거경주협회사무총장 등 스포

츠 관련 협회와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참석했다. 전남도와 6개 협회는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 등 고향사랑 실천과 도내 각종 스포츠·레저 대회 유치 및 홍보 협력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또한 6개 협회는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5만 명 가입을 약정해 서포터즈 100만 조기 달성을 통한 전남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에도 뜻을 모았다. 오지현 기자



전남새마을부녀회, 한마음어울마당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7일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전남새마을부녀회 제22회 한마음어울마당' 행사에서 유공자들에게 도지사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폭우·폭설 대응 제설자재 보관창고 신축

10억 투입 곡성·무안에 500톤 규모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폭우와 폭설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동·서부권 제설자재 보관창고 2개소를 신축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겨울철 폭설 빈도가 증가하면서 신속한 제설작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설 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동절기까지 위임국도, 지방도 등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전남도가 보유한 제설자재 보관창고는 북부권(장성), 중부권(나주) 등 2개소에 불과했다. 제설작업차량 이동 거리가 먼 동부권과 서부권의 경우, 2회 이상 작업하는데 많

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겨울철 폭설 시 제설자재 보충을 위한 차량 이동 시간이 길어져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권역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번에 준공한 제설자재 보관창고는 동부권인 곡성과 서부권인 무안 등 2개소로,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각 연면적 219㎡ 규모로 건축됐다. 창고는 약 500톤의 제설자재를 보관할 수 있어 겨울철 도로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제설창고를 이용하면 제설작업 대상 도로와 제설자재를 싣는 지점이 가까워져 최대 2시간의 작업 준비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심야나 새벽 시간대 긴급제

설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로 결빙에 따른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고, 제설자재 운송비용 절감과 작업자들의 피로도 감소 등 작업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올 겨울 15톤 덤프트럭 25대, 굴삭기 3대와 제설자재 2484톤을 사용해 총 56개 노선, 3312km(위임국도 9개 노선 600km·지방도 47개 노선 2712km)에 대한 제설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경중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혹한과 폭설이 예고된 이번 겨울철 권역별 제설작업 준비에 온 힘을 쏟겠다"며 "위임국도와 지방도를 이용하는 도민의 이동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립수목원, 겨울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내달 3일부터 '뚝뚝한 로제트' 광주시립수목원이 추운 날씨로 야외 활동이 줄어든 어린이들을 위한 겨울 특집 프로그램 '뚝뚝한 로제트'를 선보인다. 로제트식물이란 민들레, 개망초 등 짧은 줄기에 잎이 사방으로 동그랗게 나는

모습이 장미꽃과 비슷해서 붙여진 식물을 지칭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6~7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잎을 땅에 바짝 붙여 지혜롭게 겨울을 나는 로제트 식물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모습을 관찰하는 방식이다.

참가 신청은 유치원·어린이집 등 단체에서 가능하며,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시 누리집 '바로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12월3일부터 3주간 총 12회 운영되며, 1회당 최대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목원정원사업소 지질공원과(062-613-7853)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